

프랑스 문학의 중요한 특징들

프랑스 문학? 웃기는 이야기이다. 문학만 존재할 뿐, 프랑스 문학 같은 것은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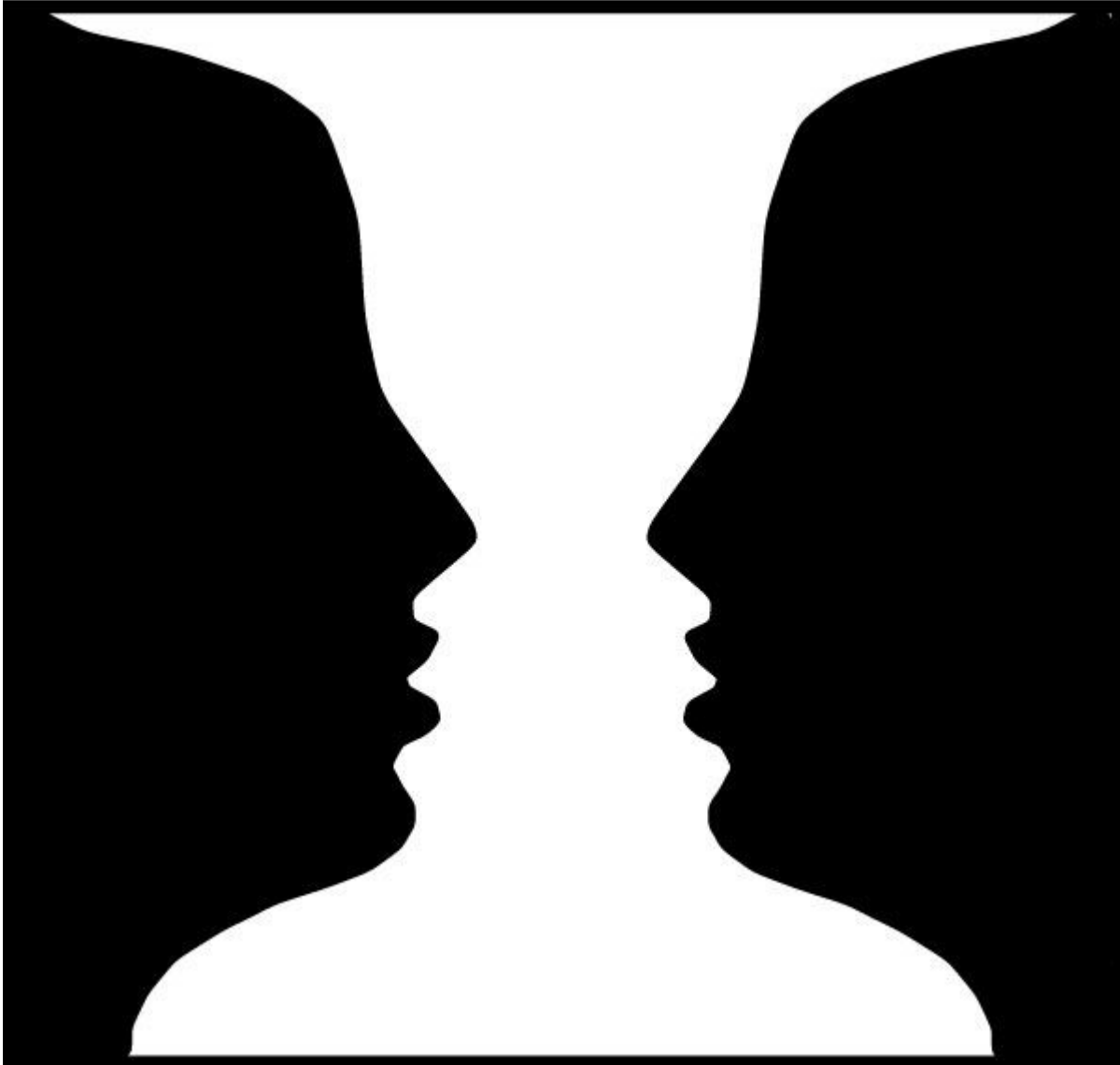
문학은 홀로 존재하지 못한다.

문학은 언어를 초월할 때 진실로 존재한다.

1. 프랑스 작가들은 시, 소설, 비평, 미술평론, 연극 등 다양한 글쓰기를 전개한 사람들이다.
2. 대부분의 시인, 작가들이 긴 문장보다는 짧고 밀도있는 문장과 묘사에 대한 취향을 갖고 있다. 프랑스 고전주의 전통을 확인할 수 있다.
3. 종교적 작가, 낭만주의 작가들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프랑스 문학의 큰 주류는 사실주의에 있다. 문학은 종교적, 정치적 사상이나 이데올로기를 비판하는 책무가 있다는 생각과 함께 신비주의를 경계하고 어쭙지 않은 감상주의를 배격했다. 판타지 소설도 별로 대접을 받지 못했다.
4. 프랑스는 불어와 프랑스 문학을 제일의 문화유산으로 생각하는 나라이다. TV를 봐도 토론과 논쟁 프로그램들이 놀랄 정도로 많다. 우리 나라처럼 "예능"이나 드라마는 거의 없다. 영화, 스포츠는 전문 채널들이 있다.
5. 독서는 프랑스인들에게 일상이다. 바캉스 때 한 묶음씩 싸가지고 간다.
6. 글 잘 쓰고 말 잘하는 것이 우대받는 사회라고 할 수 있다.
7. 살롱에서 카페로 문인들의 무대가 옮겨지며 프랑스 카페는 전세계적인 유명세를 타고 있다.
8. 종교적 영향으로 고백 문학이 발달했다. 자서전, 일기 등은 프랑스 작가들 거의 모두가 엄청난 양을 남겼다. 루소의 <고백 Confession>이 대표적.

한국 소설가 김승옥의 「夜行」의 한 장면

“여자는 빼내려고 하고 사내는 놓치지 않으려 하는 두 손은 몹시 미끄럽게 마찰되고 있었고 그 움직임이 문득 눈에 뜨이자 현주는 마치 사내가 자기를 애무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착각을 할 정도로 사내는 엄지손가락의 끝을 나머지 네 개의 손가락 끝에 맞대어 일종의 고리를 만든 것이다. 그 고리 속에 현주의 가느다란 손목이 갇혀 있는 꼴이었다. 그 고리는 여자의 가느다란 손목이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을 만큼 험렁하였다. 그러나 빠져 나올 수는 없었다. 사내의 손의 그 섬세한 조작이 그 여자의 마음에 들었다. 공포 속의 안심이라고 할까, 그 여자는 그런걸 느꼈다. 그 여자는 손목을 빼기를 단념했다. 그러자 그 고리는 점점 오므라들어 움직이기를 멈춘 여자의 손목을 아프지 않는 한계에서 조이는 것이었다. 그 여자는 문득 자기의 손과 사내의 손의 그 땀에 젖어 미끄러운 틈으로부터 생명의 거친 숨소리가 들려오는 것을 의식하였다. 그것은 북소리처럼 둔중하였고 생명의 아가미처럼 가뻘었다. 사내의 생명도 자기의 생명도 아닌 전연 낯선 생명이 지금 마악 땀에 젖은 손과 손의 틈바구니에서 태어난 것 같았다.



게슈탈트 심리학은 전체로서의 형태, 모양이라는 의미를 지닌 독일어 '게슈탈트(Gestalt)'를 사용해 전체는 부분의 합 이상이며 인간은 어떤 대상을 개별적 부분의 조합이 아닌 전체로 인식하는 존재라고 주장하는 심리학파이다. 1900년대 초 독일에서 발전한 심리학 사조로서 마음을 구성요소로 분석하려는 구성주의 심리학자들과 인간을 환경적 반응에 대한 수동적인 반응자로 보았던 행동주의 심리학자들을 반박했다. 게슈탈트 심리학은 인간이 어떻게 지각된 내용을 하나의 전체로 통합하고 분리된 자극들을 의미 있는 유형으로 통합하는지 연구하며 학습, 기억, 문제해결 등의 지적 활동에서 지각중심적인 해석을 강조했으며, 인지 심리학 발달에 많은 영향을 주었다.

[네이버 지식백과] 게슈탈트 심리학 [Gestalt psychology] (심리학용어사전, 2014. 4., 한국심리학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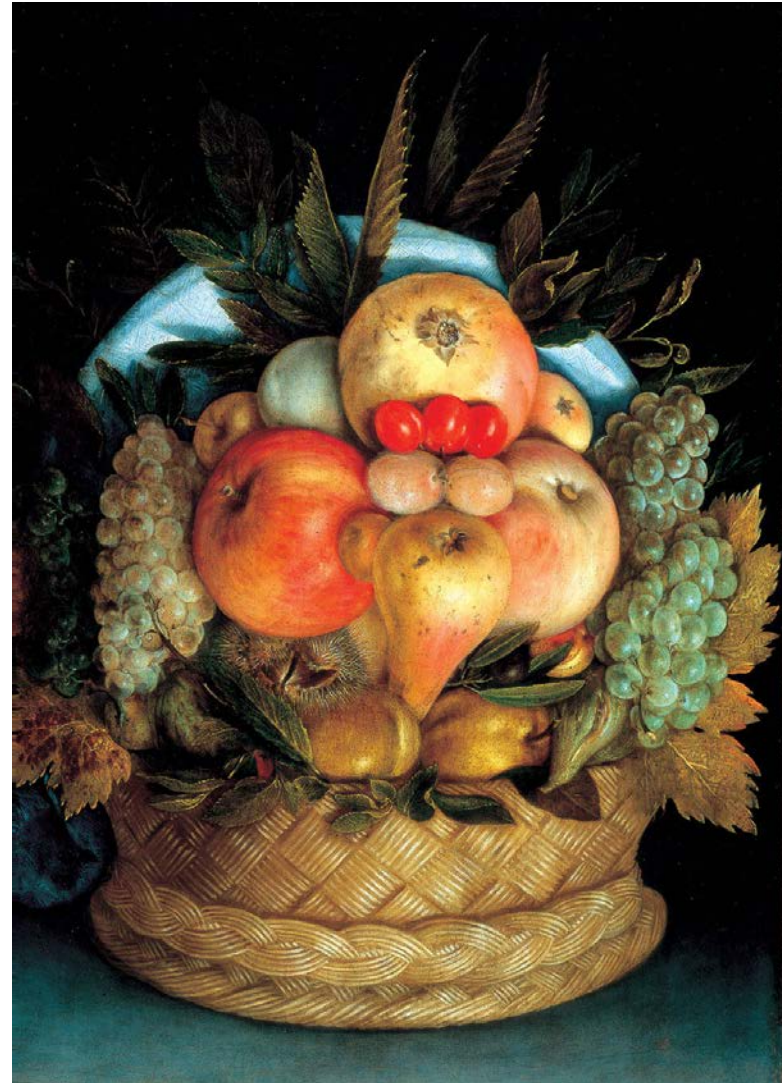




Giuseppe Arcimboldo (1527–1593), Vegetables



Giuseppe Arcimboldo - Fruit Basket



작품의 제목과 작품 사이의 관계



<Maman>???
거미 아닌가?



마이올(Aristide Maillol, 1861-1944)
지중해???

지중해. La Méditerranée



마티스 Henri Matisse "Nu Bleu"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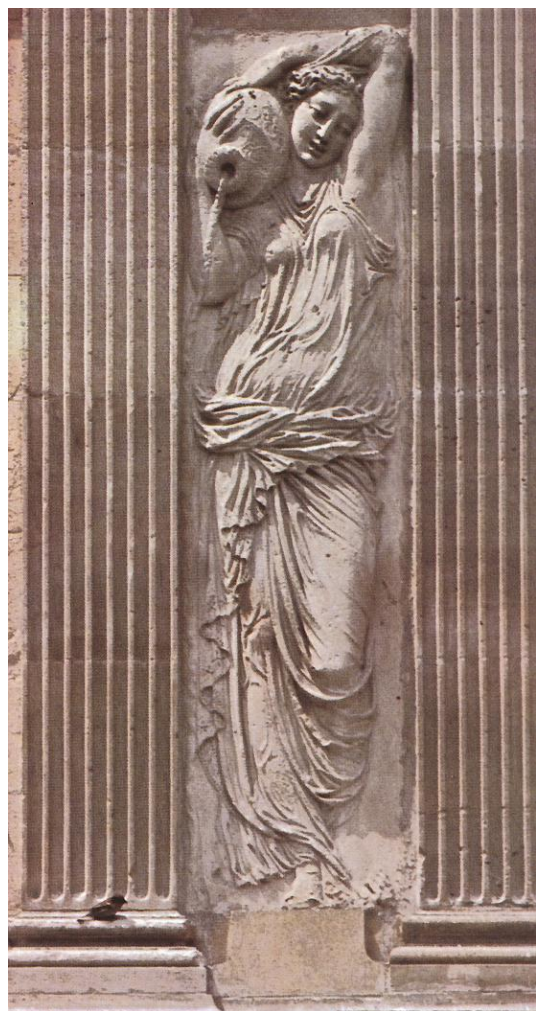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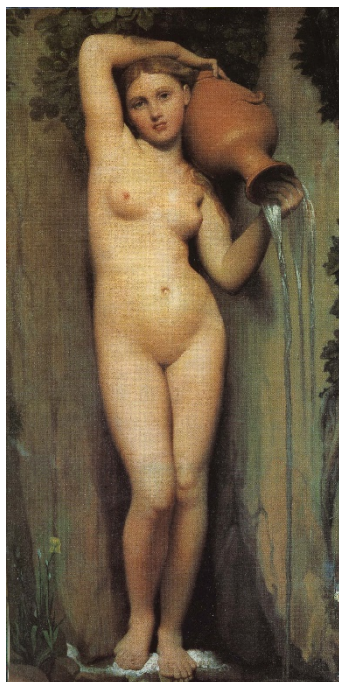
마르셀 뒤샹(Marcel Duchamp, 1887-1968)

La Fountain de Marcel Duchamp, 1917.

<샘>????



앵그르, 장 구종 등 많은 예술가들이 <샘>을 그리고 조각했다. 왜?



COCO, L'ESPRIT DE CHANEL

출로그램의 화려한 유혹, ^{New}원저17년

17년의 깊은 유혹에 찾아온다 **원저17**



Les fontaines Wallace de Paris



Gustave Courbet(1819-1877)

La Source 샘

1868

Peinture à l'huile

128 × 97 cm

Musée d'Orsa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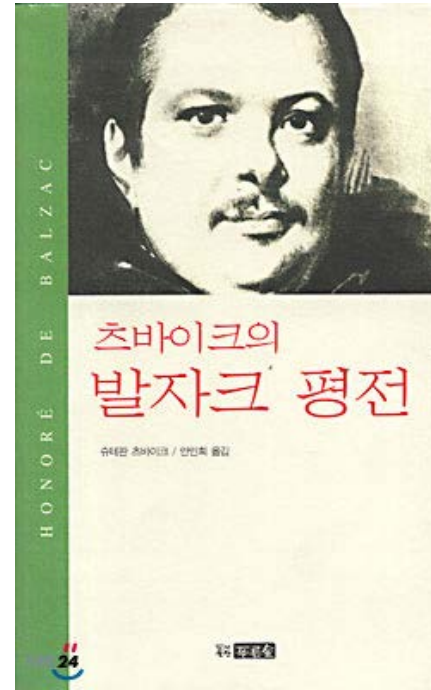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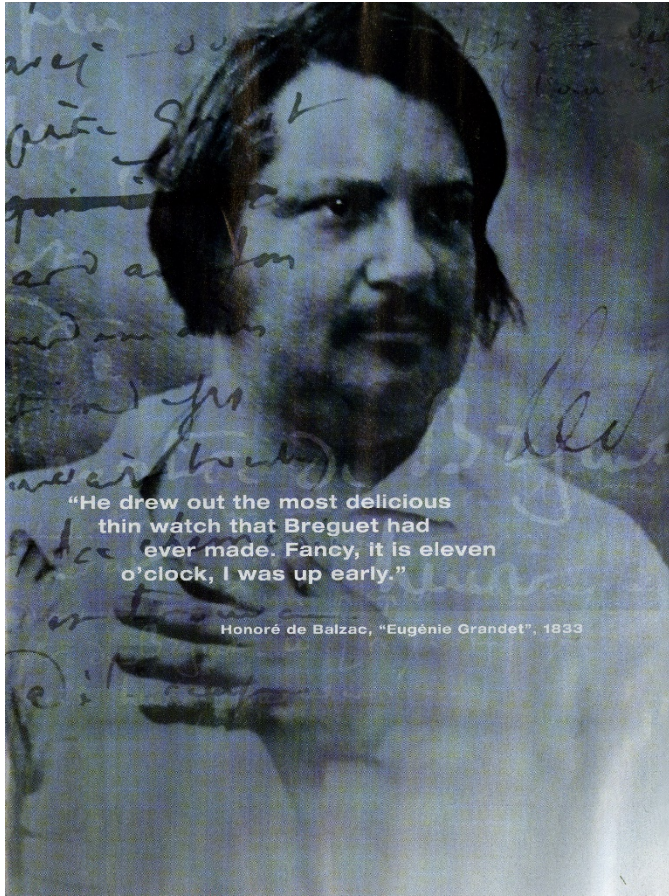


작품의 제목과 작품
로댕의 <대성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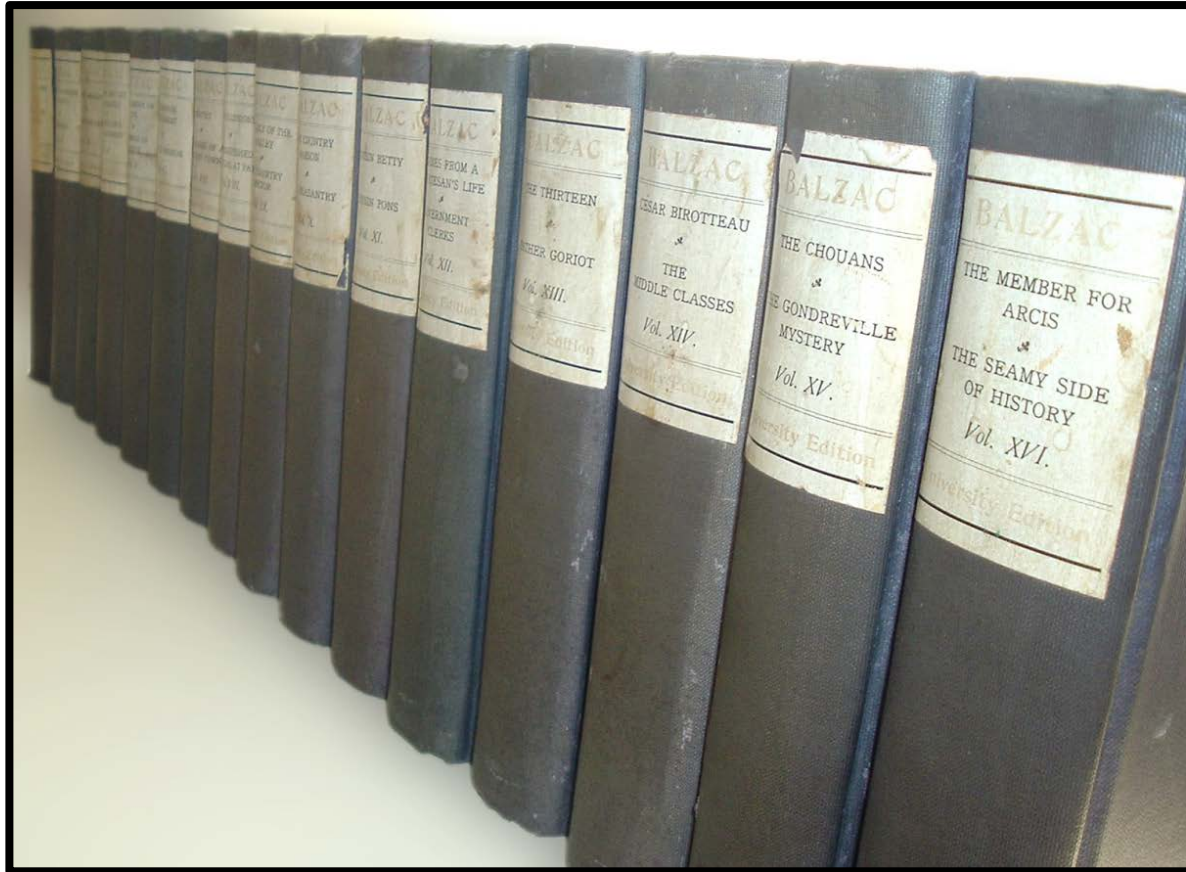
발자크(Honoré de Balzac, 본명 Honoré Balzac 1799-1850. 로댕의 <발자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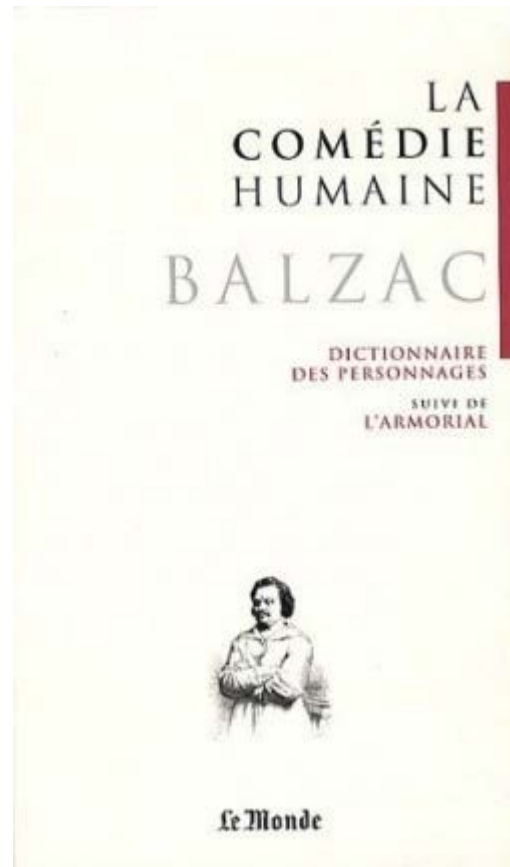


슈테판 츠바이크(독일어: Stefan Zweig, 1881년 11월 28일 ~ 1942년 2월 22일)

La Comédie humaine 인간 희곡. 90편이 넘는 소설들, 2200명의 인물들, 다 읽은 사람이 거의 없는 대작, 인물들이 반복해서 등장하고, 거의 모든 직종의 인물들이 등장하며, 죽을 때도 자신이 만들어 낸 의사 이름을 부르며 죽었다고 함.....

이런 발자크를 두고 무모하다고 할 수 있을까? 51세에 숨을 거둔 그의 삶과 우리의 삶 사이에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 오히려 그의 삶이 더 삶 같지 않을까? 과연 어떤 힘이, 어떤 이유가 그를 글 속으로 이토록 격렬하게 몰아넣었을까?





La Comédie humaine, Tome 24 : Dictionnaire des personnages suivi de l'Armorial

La Comédie humaine, Tome 24 : Dictionnaire des personnages suivi de l'Armorial

